

중생의 경계는 ‘生滅因緣’ 서 시작된다

(생멸인연)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중생의 경계는 모두 생멸인연에서 시작된다. 생멸인연이란 마음이 움직이는 과정을 설명하는 말이다. 본래 생멸을 여인 진여 곧 각(覺)이 불각(不覺)여 연(緣)을 만나 움직이는 것이니 이때 각이 인(因)이 되고 불각이 연(緣)이 된다. 물이 바람에 의해 움직여 파도가 되는 것처럼 진여가 움직여 아뢰야식(阿黎耶識)이 되는데 아뢰야식에 의해 다시 의(意)와 의식(意識)이 전개되면서 능견상과 경계상이 생겨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주관과 객관이 상대하면서 경계를 취하고 경계를 취하여 생각을 이어가는 것을 의(意)라 한다. 마치 물이 흘러가면서 물줄기를 이루는 것과 같이 생각이 앞뒤로 이어지는 상태가 바로 의(意)이다.

이 같은 의를 기신론에서는 다섯 가지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무명의 힘에 의하여 불각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업식(業識)이고 이에 의해 주관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전식(轉識)이라고 한다. 능동적으로 무엇을 보고 생각하고자 하

는 이 전식이 능히 객관경계를 나타낼 때 현식(現識)이 된다. 마치 거울이 색상을 나타내 주는 것 같다. 오관(五官: 眼, 耳, 鼻, 舌, 身)이 그 대상(色, 聲, 香, 味, 觸)을 만날 때 나타내듯 어느 것이 먼저고 나중인 선후가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끊임없이 경계를 나타내 주는 식이다.

마음 의지한 현상은 비실재적 “일체법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망령된 생각으로 차별 생긴다”

이상의 세 가지 식은 시간적으로 단편이 없기 때문에 아뢰야식 곧 본식에 속한다고 원초의 해동소에서는 밝히고 있다. 또 이 세 식(識)은 지말불각(枝末不覺)을 설명할 때의 삼세(三細)에 해당한다. 다음 지식(智識)은 육주(六 主)의 지상(智相)으로 대상에 대하여 깨끗하고 더럽다는 등의 분별을 일으키는 식이다. 또 이 식을 제7식 말나식(末那識: manas)으

로 보는데 인간의 모든 이기적인 고집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치(我癡: 나를 모르는 어리석음), 아견(我見: 나를 내세우는 고집), 아애(我愛: 나를 애착하는 생각), 아만(我慢: 나에 대한 교만) 등이 모두 식(識)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상속식(相續識)은 상속상(相續相)을 식(識)으로 말하는 것인데, 어떤 객관적 사물이나 또는 어떤 개념에 대한 관념이 항상 마음속에 숨어 있들어서 오랫동안 지속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식(識)은 사랑(思量)으로 말미암은 번뇌(愛取 煩惱)를 일으키기 때문에 과거에 저지른 잘못된 행위의 결과를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게 하며, 또 하나의 번뇌가 다른 번뇌를 조정하여 번식시켜 가는 윤행번뇌(潤生煩惱)를 일으켜 과거의 업에 대한 과보를 계속 일으켜 조금도 어긋남이 없게 한다.

이리하여 과거·현재·미래를 통해 인과(因果)가 유전하여 끊어지지 않게 된다. 앞의 지식(智識)과 상속식(相續識)의 차이는 지식은 미세한 분별을 가능으로 하는 반면 상속식은 매우 조잡(粗雜)한 분별을 일삼는다. 그러므로 상속식을 일반적 의미의 의식의 범주 속에 넣는다.

이상과 같은 이론에 입각해 삼계(三界)가 거짓된 것이며 오직 마음이 빛어

낸 바라(三界虛假 唯心所造)라 하였다. 마음을 의지하여 일어난 현상의 세계는 모두 생각이 지어낸 결과로 비실재적인 것이다. 욕심에 의해 빚어진 세계(欲界)나 물질과 형상의 세계(色界)나 관념이나 정신의 세계(無色界)가 모두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로 마음이 없으면 세상의 경계도 없다고 하였다.

여기서 기신론은 중요한 결론 하나를 내린다. 일체법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망령된 생각에 의해 차별이 생기므로 결국 모든 분별은 자기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라는 결론이다. 모든 존재의 중심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빛어낸 경계가 마음 밖에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본체는 능견과 소견의 상대가 벌어지는 게 아니어서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해 보여지는 대상인 객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분별하는 분별이 헛된 것이므로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마치 꿈속에서 무엇을 보는 경우 실제로 보는 바가 아니므로 보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마음을 따라 생기고 마음을 따 없어지는 존재의 허망성이 거울에 나타나는 영상(影像)과 같이 그 실체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화엄경에도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하여 모든 존재의 생멸이 마음에 의해 있는 것이라 하였다.



항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품앗이 法會

60년대 70년대엔 농어촌은 물론 도시의 빈민들이 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왔다.

여기에서의 품은 정신노동이 아닌 육체노동을 의미한다. 품삯은 그날 하루의 노동 댓가를 돈으로 환산해 받는 액수이다. 76년 여름, 강원도 평창군의 월정사 밑 마을 아잠마을(아가씨까지 포함)들의 하루 품삯은 단돈 800원이었다. 당시 나는 불교신문사의 기자로 월정사엔 다녀오며 묘목 쉼을 한 무리의 아잠마을을 만난 적이 있다. 그날의 감회를 불교신문에 칼럼 형식으로 담아낸 적이 있는데, 불교신문의 합본에서 단돈 800원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당시의 800원을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1달러 40센트 쯤 된다. 품삯을 지불할 수 없는 농어촌에서는 품앗이를 즐기는데 품앗이란 힘든 일을 거들어주어서 서로 품을 지고 값은 노동력의 상호교환을 뜻함이다. 이런 행위를 품을 지고, 품을 값음으로 표현해

2009년 여름이던가 지리산 실상사에서 아담법석을 몇 일간 머물며 연적이 있다. 당시 법사로는 무비 스님, 해국 스님, 도법 스님과 나까지 포함해 네 명이였다. 당시 나는 250여명의 수강생 앞에서 쓴 소리를 조목조목 열거하며 아픔을 함께했다. 가난한 루의 노동 댓가를 돈으로 환산해 받는 액수이다. 76년 여름, 강원도 평창군의 월정사 밑 마을 아잠마을(아가씨까지 포함)들의 하루 품삯은 단돈 800원이었다. 당시 나는 불교신문사의 기자로 월정사엔 다녀오며 묘목 쉼을 한 무리의 아잠마을을 만난 적이 있다. 그날의 감회를 불교신문에 칼럼 형식으로 담아낸 적이 있는데, 불교신문의 합본에서 단돈 800원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당시의 800원을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1달러 40센트 쯤 된다. 품삯을 지불할 수 없는 농어촌에서는 품앗이를 즐기는데 품앗이란 힘든 일을 거들어주어서 서로 품을 지고 값은 노동력의 상호교환을 뜻함이다. 이런 행위를 품을 지고, 품을 값음으로 표현해

물론 이런 해프닝의 부끄러운 몸짓은 한 두 사람의 돈 잔치였고, 가난하

설법 댓가 담긴 현금 봉투 거절하고 무주상 법보시가 승가의 기본되길

왔다. 그런데 요즘 조계종 상당수의 사찰에서 품앗이 법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설명인즉 신도 숫자가 해마다 줄고 있고, 사찰경계가 너적너적 않아 유명한 스님을 초청하려고 해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평소 알고 지내는 도반 스님께 품앗이 법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A사찰의 주지스님이 B사찰에 가서 법회를 맡아 강해해주면 그 다음엔 B사찰의 주지스님이 A사찰에 와서 품앗이를 맡아 강해한다는 것이다.

신도들이 익히 그 이름을 알고 있을 유명한 스님들이 법회 후 설법의 댓가가 담긴 현찰이 든 두툼한 봉투를 거절과 사양 없이 의례적 받아 챙겨 간다면 이는 법보시(法布施)정신을 몽개버린 부끄러운 행위이다.

신도들의 재보시(財布施)에 답례하는 기본적인 행위로서, 상식이 통하는 스님이라면 당연히 분명하게 몇몇하고 당당하게 현찰이든 봉투를 거절해야한다. 초청해주며 고맙고 법회를 맡겨줘 감사하다며 개운하고 깔끔하게 법보시(法布施)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떠나야 한다.

고 가난하여 해제 후 빈손으로 떠나는 운수남자들이 많았음도 장벽 없는 토론장에서 밝혀졌었다.

얼마 전, 백령도의 부령 스님한테서 전화가 왔었다. 도반들끼리 품앗이 법회를 하고 있지만 법보시를 실천하고자 하는 몇몇 도반들이 그 뜻을 함께하는 돌레를 넓혀가고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설명이였다. 며칠 전, 나의 도반 도법 스님으로부터 도반 모임에 대해 의견조율을 위한 전화가 왔었다. 그때 나는 진지하게 무게감 있게 도법 스님이 주관하는 100인대 중공사에서 법보시를 당연히 공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재가자(在家者)는 주는 쪽이고 출가자(出家者)는 받는 쪽이 되어서 안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고 일깨워 준 댓가를, 그것도 유명한 스님들이 세금 거두어가듯 꼬박 꼬박 현금봉투를 챙겨간다면 이는 이슬우화(露華)나 등장할,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나 볼 수 있는 슬프디 슬픈 부끄러운 일이겠기 때문이다. 무주상(無住相)보시와 법보시(法布施)의 실현이 승가(僧伽)의 기본이 되길 바랄뿐이다.

보시는 ‘福田’ ... 공덕은 대지와 같아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 보시의 공덕

所以名一切 大悲心普故
(소이명일체 대비심보고)
大悲所以普 為求種智故
(대비소이보 위구종지고)
施佛及羅漢 世名良福田
(시불급나한 세명량복전)
不悲平等施 是為最勝施
(불비평등시 시위최승시)
無量財寶施 不如暫止息
(무량재보시 불여잠지식)
悲心施一人 功德如大地
(비심시일인 공덕여대지)

번역
소이 일체라는 말은 대비심(大悲心)으로 널리 베풀는 것이니, 대비심으로 널리 베풀는 까닭에 지혜의 종자를 구하게

됩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이라한에 이르기까지 세속에서는 선량한 ‘복을 심는 밭’이라고 하나니, 자비와 평등한 마음의 보시가 아니어도 이것은 가장 수승한 보시가 됩니다.
한량없는 재물로 보시할지라도 탐욕을 그치고 번뇌를 쉬는 것만 못하지만, 자비심으로 한 사람에게라도 보시하면 공덕이 대지(大地)와 같습니다.

해설
보시하는 마음은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해탈의 길이 다. <연기경>에서는 감수 작용을 통해 애착이 생긴다고 하였다. 내게 있는 것이 영원히 내 것일 리가 없고,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게 지금 내 것처럼 와 있는 것이라.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 내 것이라는 감수 작용을 일으키고, 욕구와 탐욕을 일으키고, 다시 집착심을 만든다.

<연기경>을 살펴보면, 집착에 의해 소유가, 소유에 의해 인색함이 생기며, 인색함을 인연으로 하여, 보호하려고 칼을 잡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을 하는 온

물질에 집착한 가련한 삶

대비심의 보시, 지혜를 얻는다

갖 선하지 않은 법 등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보시가 아니고서는 이런 온갖 불선법(不善法)을 어찌 떨쳐낼 수 있겠는가.

<대인연경>을 보면,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실로, 각자 열반에 든다’고 하였다. 우리는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한다.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이웃과 친구를

잃어버릴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죽음에 이르면 누구나 어차피 두고 떠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다. 차라리 이런 두려움은 자연스럽다. 인간은 인간에 기대어 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집착과 그 물질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삶은 가엾지 아니한가?

물질을 얻으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을 잃고, 시간을 잃고, 사랑도 잃는다. 물질은 얻었으나 그 물질에 집착하여 불행과 두려움까지 따라 얻는 삶을 산다. 사람이 가련한 이유다.

그래서 제바보살이 이르기를, ‘대비심으로 하는 보시는 지혜의 종자를 얻게 된다’고 하였다. ‘자비심으로 한 사람에게 보시할지라도 일체에게 보시한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부처님과 이라한은 복전(福田)이다. 복전은 복을 심고 복을 수확하는 곳이다. 비록 자비와 평등심이 부족할지라도 가장 수승한 보시가 된다. 아라한은 오늘날 깨달은 스님들이나, 또는 수행하시는 스님들이나,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